

언어네트워크분석을 통한 국내 문화정책 연구동향 분석(2008-2017)

An Analysis of Cultural Policy-related Studies' Trend in Korea using Semantic Network Analysis(2008-2017)

박양우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Yang Woo Park(ywpark1010@cau.ac.kr)

요약

본 연구는 콘텐츠산업정책을 포괄하는 문화정책에 대한 학술적 연구의 동향을 알고자 언어네트워크분석을 통해 국내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정책 분야 전문학술지인 '문화정책논총'에 수록된 186편의 논문 주제를 832개를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 홈페이지(www.kci.go.kr)에 수록되어 있는 2008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로 하였다. 언어네트워크 분석은 주제어 빈도수, 밀도분석과 중심성을 지표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Netdraw 프로그램에 의한 시각화를 시도하였다. 언어네트워크분석 결과 가장 많은 빈도수를 기록한 주제어는 '문화'였고, '문화정책/행정', '문화산업/문화콘텐츠', '정책'이 최다의 빈도수를 기록한 그룹에 포함되었다. 빈도수가 높은 '문화정책/행정'과 '문화산업/문화콘텐츠'는 대부분의 중심성에서 우위를 차지했으나, 매개중심성은 낮아 다른 주제어들과의 중매 역할에는 한계를 드러냈다.

■ 중심어 : | 언어네트워크분석 | 문화정책 | 문화정책연구 | 연구동향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esearch trend of cultural policy-related papers based on 832 key words among 186 whole articles in the Journal of Cultural Policy by the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from October 2008 to January 2017. The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a big data analysis technique called the Semantic Network Analysis. The Semantic Network Analysis consists of frequency analysis, density analysis, centrality analysis including degree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and eigenvector centrality. Lastly, the study shows a figure visualizing the results of the centrality analysis through Netdraw program. The most frequently exposed key words were 'culture', 'cultural policy/administration', 'cultural industry/cultural content', 'policy', 'creative industry', in the order. The key word 'culture' was ranked as the first in all the analysis of degree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and eigenvector centrality, followed by 'policy' and 'cultural policy/administration'. The key word 'cultural industry/cultural content' with very high frequency recorded high points in degree centrality and eigenvector centrality, but showed relatively low points in betweenness centrality.

■ keyword : | Semantic Network Analysis | Cultural Policy | Cultural Policy Research | Research Trend |

접수일자 : 2017년 08월 24일

수정일자 : 2017년 10월 31일

심사완료일 : 2017년 11월 01일

교신저자 : 박양우, e-mail : ywpark1010@cau.ac.kr

I. 서론

세계 각국은 문화를 주요한 국가전략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문화정책을 펼치고 있다. 2017년 5월 들어선 문재인정부는 7월 19일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아래에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를 20대 국정전략 중 하나로 제시함으로써 문화정책이 역시 국가의 중요한 정책임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1].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문화정책은 1972년 문화정책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되고 이듬해인 1973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설립된 이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문화정책에 관한 연구는 학계에서 별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2]. 우리나라에서 문화정책에 관한 연구는 1987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문화발전연구소가 설립되고 난 1980년대 후반부터 비로소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3][4].

그러나 1980년대 문화정책에 관한 연구[5][6]는 과학적인 연구라기보다는 정부정책을 기술하는 정도의 기초적인 연구였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들어 정책학계와 행정학계를 중심으로 문화정책의 시기 구분과 문화행정의 틀 설정 및 분석이 시도되었다[2][7-10]. 아울러 정당의 이념과 철학에 따른 문화정책의 목표[11]와 철학적 견지에서 본 문화정책[12], 그리고 정치적 시각에서 본 문화정책[13] 논의도 진행되었다. 2000년대에 노무현정부가 들어서면서 문화민주주의에 입각한 문화개념의 확장 논의[14]와 문화정치화 대상으로서의 문화담론이 제시되었다[15]. 이 시기엔 한류현상을 문화산업 정책적 견지에서 고찰한 연구[16],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추이를 문화예산을 바탕으로 분석한 연구[17], 해방 이후부터 「참여정부」까지의 문화행정을 시간적 범위를 정해 분석한 연구[18] 등이 줄을 이었다.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은 문화창조력의 제고(enhancing)와 문화복지 혹은 문화향수권의 확대(spreading) 차원을 넘어 문화경제의 증대(economy)로 그 목표 중심이 옮겨지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 문화산업, 곧 문화콘텐츠산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15][19]. 이에 따

라 200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한국 문화콘텐츠산업 정책의 추세를 문화재정 측면에서 고찰하는 연구가 등장하는 등[20] 이 분야에 관한 연구들이 늘어가면서 문화정책 연구는 그간의 좁은 의미의 예술을 뛰어 넘어 문화콘텐츠산업, 저작권, 문화복지, 다문화, 한류 등 연구의 양과 폭이 크게 늘어났다.

이처럼 문화정책에 관한 연구가 늘어나면서 문화정책 연구동향에 관한 학문적 관심도 생겨났다. 임학순[21]은 1980년대 중반에서 1996년까지의 선행연구를 대상으로 문화정책의 연구영역과 연구경향을 분석했다. 그는 문화정책 가치와 문화계획, 문화정책(행정)체계, 문화정책지표, 문화경제학 분야, 문화시설 및 문화조직 경영 등을 문화정책 연구경향 연구의 분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계속해서 임학순[22]은 1988년부터 2007년까지의 우리나라 문화정책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다. 그는 문화정책 연구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눈 다음 공공부문의 경우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연구보고서를 중심으로 문화산업정책연구 경향과 문화산업축제와 전시회에 관한 연구들을, 민간부문의 경우 문화정책 분야 학문공동체와 정책학·행정학계의 학술활동 및 석·박사 학위를 대상으로 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는 같은 해에 한국예술경영학회가 발행하는 '예술경영연구' 수록 논문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예술경영 연구경향 분석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문화정책의 연구경향을 파악하는데도 의미 있는 연구 자료라고 할 수 있다[23]. 양지연[24]은 문화정책 및 예술경영 측면에서 중요한 영역인 박물관 경영과 관련하여 해외박물관 경영에 관한 연구 동향을 분석 이를 학계에 발표하였다.

2010년대에 들어서서 문화정책 전반이라기보다는 문화정책의 주요 영역이자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특정 주제들의 연구 동향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병량[25]은 다문화정책, 황동열·홍성보[26]는 박물관 분야의 학술연구 동향에 관한 연구를 시도했다. 황동열·홍성보는 박물관의 자료 주제별 분류, 설립주체, 법적 등록요건, 사회적 기능, 구성요소, 기능과 역할 등을 계량 서지학적인 측면에서 입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서순복[27]은 행정 관련 학술지를 대상으로 문화행정과 정책 주제 및 연구방법에 관한 연구 추이를 분석하였다. 김

정수[4]는 문화행정과 관련된 학술지, 행정학 박사학위 논문, 그리고 학술 단행본을 대상으로 행정학적 관점에서 문화행정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는데, 문화행정에 관한 일반 이론의 구축을 위한 개념적 혹은 철학적 연구가 드물고, 주요 주제별로 특화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지적했다.

위에서 보듯이 문화정책 연구동향에 관한 연구는 그리 활성화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동안의 연구들은 주로 연구주제를 바탕으로 문화정책의 주제나 분야, 연구방법들에 대해 전통적인 내용분석법을 통해 분석되어 왔다. 본 연구는 언어 연결고리를 활용하여 연구동향을 분석할 수 있는 언어네트워크분석법(Semantic Network Analysis)을 활용하여 국내 문화정책 연구동향을 분석함으로써 문화정책 연구에 기여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 홈페이지(www.kci.go.kr)에 수록된 문화정책 분야 국내 대표적 전문학술지인 '문화정책논총'에 수록되어 있는 2008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의 전체 논문들의 주제어(key words)를 찾아내어 이를 바탕으로 이 논문들이 다룬 주제어의 빈도수와 연결 관계를 통해 입체적인 문화정책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문화정책

문화정책은 문자적으로 보면 문화와 정책을 합친 용어로 문화에 관한, 문화를 위한 정책이다. 문화정책은 공공정책이라 불리는 일반적 의미의 정책의 하부정책이며[28], '형용사적 정책'(adjectival policy)이라고도 할 수 있다[29]. 그렇기 때문에 문화정책에서는 문화의 정의와 범위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문화의 정의는 연구하는 입장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세 가지로 나뉘 볼 수 있다. 우선 문화는 소수의 인사가 최고의 사고를 바탕으로 만드는 수월적인 것이라는 Arnold[30]의 엘리트주의적 입장이다. 다음으로는 문화란 특수하거나 수월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총체적인 생활양식이라고 보는 Tylor[31]나 Williams[32]

의 문화인류학적 또는 문화보편적 입장이다. 통상 문화정책에서 다루는 문화는 이 두 입장 중간에 위치하되 문화부 등 정부의 문화 담당 공공기관에서 정책으로 다루고 있는 정도의 문화로 이해하는 절충론적 입장을 견지한다.

정책에 관해서도 그 정의는 다양하다. 정책은 목적과 실행을 투사한 계획이며[33], 주로 정부기관에 의해 결정되는 미래를 지향하는 행동의 주요지침이다[34]. 정책은 또한 바람직한 국가나 사회를 만들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이다[35]. 이 같은 견지에서 문화정책은 정부, 곧 문화체육관광부와 소속 공공기관 및 유관정부부처가 민족의 정체성, 문화유산과 예술, 생활문화, 교육과 학습, 자연적이고 인공적인 경관, 대중매체와 문화산업, 관광, 스포츠와 레저 활동, 국제문화 교류와 협력 등 분야에서 문화 창달을 위한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공식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문화정책은 문화정책논총에 수록된 주제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부의 문화정책이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2. 언어네트워크분석

언어네트워크분석은 사회네트워크분석의 한 갈래로 문장, 곧 언어들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들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주 관심사인 연구방법이다[36]. 즉, 문장 속의 단어를 추출하여 이들의 빈도수와 이들 단어 간의 관계를 통해 네트워크를 만들어 내고 이들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관계를 알아내는 내용분석법의 하나이다[37-39].

이제까지의 연구 동향에 관한 내용분석은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직접 읽고, 단어를 추출하여 이를 범주화한 다음 빈도수를 중심으로 연구 경향을 진단해왔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에 따라 주관적인 문장의 이해가 수반되고, 단어와 단어 간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규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연구 결과를 객관화하는데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반해 언어네트워크분석

법은 학술데이터베이스, 나아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종합적인 방법으로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방법은 단어가 사용된 빈도수를 찾아내어 반복된 빈도수를 양적으로 제시하는 단순한 수준을 넘어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는 물론 이들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밝혀줌으로써 연구경향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입체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39-43].

언어네트워크분석에 주로 활용되는 분석지표로는 크게 밀도(density)와 중심성(centrality)을 들 수 있다[44]. 밀도란 언어네트워크 내에서 단어와 단어 간에 얼마나 많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고밀도는 시각적으로 연결점이 밀집하게 연결되어 있고 상호간의 관계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저밀도는 단어 사이의 관계가 낮다고 할 수 있다[39][45]. 중심성은 네트워크상에서 단어 또는 개념을 연결점(node)으로 나타내는데, 이 연결점이 네트워크상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중심성은 다시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근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위세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42][46][47]. 연결중심성은 네트워크 안에서 연결점 수의 합을 말하는데, 한 연결점에 직접 연결된 다른 연결점의 수를 말한다. 연결중심성에는 다른 단어들이 관계를 맺고 싶은 대상 단어로 선정되는 것을 나타내는 내향중심성(in-centrality)과 내 쪽에서 외부의 다른 단어들과의 연계활동을 나타내는 외향중심성(out-centrality)이 있는데 연구경향 분석에서는 내향중심성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43]. 매개중심성은 네트워크 안에서 한 연결점이 다른 연결점 사이에 위치한 정도를 말하는데, 다른 연결점들 사이의 매개 역할 정도를 표시한다. 근접중심성은 연결점 사이의 거리로서 연결점 간의 가까운 정도를 나타낸다. 위세중심성은 네트워크 상에서 각 연결점이 중심에 위치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중심성이 높은 연결점들과의 관계를 가지는 정도를 알려준다. 중심성분석은 빈도수와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빈도수와 별도로 주제어들간의 관계를 통해 연구동향의 중요도를 추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연결중심성 외에도 매

개중심성은 주제어 빈도나 연결중심성과 별도로 다른 주제어 간의 중매 역할 정도를, 위세중심성은 다른 중심 주제어와의 친밀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비록 다른 지표에서 수치가 조금 낮더라도 이들 수치가 높으면 연구동향의 주요 주제어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언어네트워크분석에서는 언어구조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만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밀도와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그리고 위세중심성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III. 연구설계

1. 연구문제 및 분석대상

본 연구의 분석은 국내 문화정책의 대표학술지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문화정책논총'을 대상으로 하고, 한국학술지인용색인 홈페이지(www.kci.go.kr)에 수록되어 있는 2008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의 전체 논문 186편의 논문에 나오는 832개의 주제어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문화정책논총은 1988년 12월 제1집 1호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출간되어 왔으나, 한국학술지인용색인 홈페이지(www.kci.go.kr)에는 2008년 10월부터 등재되어 있어 여기에 등재된 전체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하게 된 것이다. 연구의 시기 구분은 정권별이나 5년 또는 10년 단위로 구분하여 연구하기도 하지만, 한국학술지인용색인 홈페이지(www.kci.go.kr)의 수록 기간이 정권으로 나누기에는 출범시기 등을 감안할 때 적절치 못해서 동 홈페이지에 수록된 문화정책논총 전체 데이터를 활용한 지난 10년 간의 논문 주제어를 분석대상으로 삼아 문화정책 분야의 연구동향을 연구하고자 한 것이다.

이 같은 연구목적을 위해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008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발간한 '문화정책논총' 논문의 주제어 빈도를 바탕으로 어떤 주제어가 주로 다루어졌으며, 연도별 문화정책의 흐름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008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발간한 ‘문화정책논총’ 논문의 주제어 사이의 관계(언어네트워크상의 밀도,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위세중심성 분석)는 어떠한가?

2.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문화정책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살펴보기 위해 문화정책에 관한 이론과 동향, 그리고 언어네트워크분석에 관한 문헌고찰을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언어네트워크분석법을 활용하여 주제어들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언어네트워크분석에 활용한 프로그램은 주제어 빈도분석을 위해 KrKwic 프로그램[48], 주제어별 밀도분석·연결중심성분석·매개중심성분석·위세중심성분석을 위해 Ucinet 프로그램, 그리고 네트워크 시각화 분석을 위해 Netdraw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49].

언어네트워크분석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시행하였다. 첫째, KrKwic 프로그램으로 주제어에 대한 행렬자료를 분석하였다.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 홈페이지(www.kci.go.kr)의 ‘문화정책논총’ 186편에 나오는 주제어를 추출하여, 빈도수가 높은 순서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문화정책과 언어네트워크분석 전문가 5인으로 주제어 정제작업을 거쳐 빈도수 4회 이상의 주제어를 뽑아 2008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의 총체적인 연구동향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둘째, 다음으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연도별 주제어의 흐름을 분석하였다. 셋째, Ucinet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맨 앞에서 산출한 주제어별 노출 빈도수 행렬을 이용하여 언어네트워크의 연결빈도, 밀도와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그리고 위세중심성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Netdraw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주제어간의 관계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시각화하였다. 주제어를 바탕으로 추출된 그림에서 연결점(node)이 크면 클수록 많은 주제어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연결점의 크기는 연결선 수를 나타낸 것이다[39][50][51].

IV. 실증분석 결과

1. 주제어 빈도분석 결과

분석대상 주제어 832개 중에서 4회 이상 사용된 주제어는 42개였다. 주제어 빈도분석을 위해 문화정책, 언어네트워크분석 연구 경험이 있는 전문가 5인의 사전 검토를 거쳐 이 중에서 문화정책, 문화예술정책 등과 같이 유사용어를 정제하여 1차로 30개의 주제어를 집계하였다. 이 중 인력, 자격, 정체성, 제도는 문화정책의 장르나 영역이라기보다는 다른 주제어와 결합해 보완하는 성격이 있어 독립된 주제어 분석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이들을 제외하고, [표 1]과 같이 24개 주제어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문화’가 43회로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다음으로 20회 이상 기록한 주제어로는 ‘문화정책/행정’(25), ‘문화산업/문화콘텐츠’(24)였고, 뒤를 이어 ‘정책’(15), ‘창조(산업)’(14), ‘박물관/뮤지엄’(13), ‘미술’(12), ‘문화예술’, ‘문화복지’, ‘저작권’과 ‘지역’ 그리고 ‘다문화’(10회) 등 12개 주제어가 10회 이상으로 집계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교육’(9), ‘시장’(8), ‘공연(예술)’(7), ‘일자리’(7), ‘종교’(7), ‘중국’(6)과 ‘한류’(6)가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도시’, ‘마케팅’, ‘축제’가 각각 5회, ‘거버넌스’, ‘문화자본’이 각각 4회를 기록했다.

이로 보건데, 최근 8년간 문화정책에 관한 연구의 주제는 정책의 주 대상인 ‘문화’가 가장 많이 다루어졌고, ‘문화정책’ 자체도 두 번째로 연구 주제어가 되었으며, 1990년대 말부터 문화정책의 주테마로 떠오른 ‘문화산업/문화콘텐츠’가 바짝 뒤를 이어 이 세 주제어가 문화정책 연구를 앞에서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문화정책에 관한 연구이다 보니 ‘정책’에 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 크게 보면 ‘문화’, ‘문화정책’과 ‘정책’이 모두 한 주제어로 다룰 수도 있으나 ‘문화’가 반드시 ‘정책’과 결부 되는 것만은 아니며, ‘정책’ 또한 다양한 분야의 문화와 결부되기 때문에 이 둘은 별도로 분석하였다. 문화산업과 문화콘텐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창조(산업)’도 최근 들어 문화정책의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전통적인 의미의 문화정책 장르 중에서는 ‘박물관/뮤지엄’이 가장 많이 연구되었고, 다음으로 ‘미술’, ‘종교’와 ‘공연(예술)’이 뒤를 이었다. 장르가 아닌 정책 주제로서 위의 주제어들 뒤를 이어 일반 문화에

2009년도의 경우 총 108개의 주제어 중 2회 이상의 빈도수를 기록한 주제어는 7개였다. 이 중 ‘박물관/뮤지엄’(8), ‘문화정책/행정’(7), ‘문화산업/문화콘텐츠’(6), ‘문화’(5)가 중심 주제어라고 할 수 있다. 2010년도는 총 80개의 주제어 중 2회 이상의 빈도수를 기록한 주제어는 9개였다. 이 중 ‘문화’(14), ‘정책’(4), ‘다문화’, ‘문화관’, ‘문화예술교육’, ‘일자리’(3)가 중심 주제어라고 할 수 있다. 2011년의 경우 총 92개의 주제어 중 2회 이상의 빈도수를 보인 주제어는 14개였다. 이 중 ‘문화’와 ‘박물관/뮤지엄’(4), ‘미술’, ‘예술인’, ‘공공성’과 ‘문화경제’(3)가 중심 주제어라고 할 수 있다. 2012년도는 총 147개의 주제어 중 8개 주제어가 2회 이상의 빈도수를 기록했다. 이 중 ‘문화’(10), ‘종교’(4)가 중심 주제어라고 할 수 있다. 2013년도의 경우 총 134개의 주제어 중 2회 이상의 빈도수를 보인 주제어는 6개였다. 이 중 ‘창조산업’(6), 유사한 주제어인 ‘문화산업/문화콘텐츠’(5), ‘문화정책/행정’(5), ‘문화’(4)가 중심 주제어라고 할 수 있다. 2014년도는 총 129개의 주제어 중 2회 이상의 빈도수를 기록한 주제어는 12개였다. 이 중 ‘다문화’(4), ‘문화산업/문화콘텐츠’, ‘공연예술’, ‘관광’, ‘고택/종택’, ‘지역문화’(3)가 중심 주제어라고 할 수 있다. 2015년도를 보면 총 127개의 주제어 중 2회 이상 거론된 주제어는 12개였다. 이 중 ‘문화산업/문화콘텐츠’(6), ‘저작권’(4), ‘한류’, ‘관광’, ‘문화복지’, ‘사회복지’, ‘공연예술’(3회)이 중심 주제어라고 할 수 있다. 2016년도는 총 150개의 주제어 중 2회 이상의 빈도수를 기록한 주제어는 10개였다. 이 중 ‘문화’(7), ‘문화정책/행정’(5), ‘문화산업/문화콘텐츠’와 ‘여가’(4), ‘일자리’, ‘축제’와 ‘연극’(3)이 중심 주제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문화정책논총’에 수록된 주제어만 보아도 그 숫자가 대체로 매년 100개를 넘은 것을 볼 때에 2009년도부터는 문화정책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연도별 분석에서 언급한 것 외에 특이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9년에 ‘문화경제학’에 관한 주제가 다루어졌고, 2010년도는 특정사업적 성격의 ‘문화관’도 3회나 언급되었다. 2011년도에는 전년도에 이어 ‘문화산업/문화콘텐츠’가 2회 이상 목록에서 제외된 대신 ‘문화경

계’, ‘공공성’ 등이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 2012년도에는 ‘종교’가 4회나 언급되었다, 2013년도에는 ‘창조산업’이 가장 많이 논의되었는데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붙었던 창조경제 열풍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산업/문화콘텐츠’가 본질적으로 ‘창조산업’과 같다고 볼 때 2013년도는 문화콘텐츠 연구의 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아울러 이 해에는 ‘문화제정’에 관한 논의도 3회나 거론되었다. 2014년도에는 ‘다문화’에 관한 논의가 가장 앞서 있고, ‘관광’, ‘공연예술’, ‘고택/종택’, ‘지역문화’ 등 문화와 관광이 연계된 연구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2015년도는 다시 ‘문화산업/문화콘텐츠’에 관한 연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문화산업과 밀접한 ‘저작권’이 뒤를 이었다. 복지에 관한 관심들이 높아지면서 ‘문화복지’와 ‘사회복지’에 관한 연구도 상위권을 차지했으며,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관광’이 많이 논의어졌고, ‘한류’와 ‘한류’의 주 무대인 ‘중국’에 관한 연구도 주요 연구로 다루어졌다. 2016년도의 경우 ‘문화산업/문화콘텐츠’ 연구가 여전히 최상위권을 차지했고, ‘여가’와 ‘축제’, ‘연극’에 관한 연구가 많은 것도 이 해에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보면 지난 8년간의 문화정책 연구에서 ‘문화’, ‘문화산업/문화콘텐츠’, ‘문화정책/행정’은 꾸준히 최상위로 다루어져 온데 반해, 다른 주제어들은 연구동향과 관련하여 연도별 일관성은 찾기 어려웠다. 문화정책의 영역이 다양해지면서 정책연구 또한 특정 주제와 영역을 나타내는 주제어에 편중되기보다 다양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주제어별 연결빈도분석 결과

[표 3]은 상위 11개 주제어별 연결빈도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 표에서 보듯이 ‘문화’는 ‘정책’과 가장 많은 연결 관계를 갖고 있으며, ‘문화정책/문화행정’과 ‘문화산업/문화콘텐츠’과는 비슷한 수준에서 연결되어 있고, ‘문화복지’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정책/문화행정’은 문화정책의 대상과 연결이 깊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책’을 제외하면 역시 ‘문화’와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고, 다음으로 많지는 않지만 ‘창조(산업)’와 ‘문화산업/문화콘텐츠’와 연결되어 있다. ‘문화산업/문화콘텐츠’는 ‘문화’와 가장 많이 연결되

어 있고 큰 차이를 두고 '정책', '창조(산업)', '일자리'와도 연결되어 있다. '정책'은 그 대상과 밀접히 관련이 있을 텐데 '문화'와의 관련이 압도적으로 많고, 다음이 '문화정책/행정', 그리고 '창조(산업)'와 '교육'이 한참 큰 차이로 뒤를 잇고 있다. '창조(산업)'의 경우는 '문화'와 '도시'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고, '정책', '문화정책/행정', '문화산업/문화콘텐츠'와도 연결되어 있다. '문화예술'은 '문화'와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고, 다음으로 '교육', '정책', '지역'과 연결되어 있다. '문화복지'는 '문화'와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고, '지역'은 '문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단독 주제어로서 빈도수 6, 7위를 차지했던 '박물관/뮤지엄'과 '미술'은 연결 관계에서 미미한 숫자를 보였고, 공동 8위인 '저작권'은 연결 관계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표 3. 상위 11개 주제어별 연결 빈도분석 결과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문화		문화정책/행정		문화산업/문화콘텐츠	
정책	90	문화	61	문화	60
문화정책/행정	61	정책	31	정책	6
문화산업/문화콘텐츠	60	창조(산업)	5	창조(산업)	5
문화복지	29	문화산업/문화콘텐츠	3	일자리	4
정책		창조(산업)		박물관/뮤지엄	
문화	90	문화	24	문화	5
문화정책/행정	31	도시	14	정책	2
창조(산업)	9	정책	9	문화정책/행정	
교육	8	문화정책/행정	5	지역	
		문화산업/문화콘텐츠			
미술		다문화		문화예술	
시장	13	문화	27	문화	41
정책	7	정책	2	교육	8
지역	4	교육		정책	6
중국	2	축제	1	지역	3
문화복지		저작권		지역	
문화	29	-	-	문화	25
지역	2	-	-	정책	4
문화예술		-	-	미술	
		-	-	도시	

4. 밀도분석 결과

Ucinet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대상인 24개 주제

어에 대한 밀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제어 간 밀도는 [표 4]와 같이 0.039를 기록했다. 밀도가 주제어 간의 연결정도를 나타낸다고 할 때 위 [표 3]에서 보듯이 '문화', '문화정책/행정', '문화산업/문화콘텐츠', '정책' 등 일부 주제어들 간에는 연결정도가 강했으나 나머지 주제어들 간의 연결 관계는 대체로 미약하게 나왔는데,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주제어들 간의 밀도는 그리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4. 주제어 밀도분석 결과

구분	2008년 10월 ~ 2017년 1월
네트워크 밀도	0.039

5. 중심성분석 결과

본 연구의 중심성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연결중심성은 중심성분석 중 가장 중요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향중심성을 기준으로 볼 때 [표 5]에서 보듯이 연결중심성이 압도적으로 가장 높은 주제어는 '문화'였고, 다음으로는 주제어 빈도수에서는 4위인 '정책'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문화정책/행정'이, 다음으로는 주제어 빈도수에서는 14위인 '시장'이 연결중심성은 4위를 차지했다. 이는 '시장'이란 주제어가 문화예술의 모든 장르와 어울릴 수 있는 주제어라는 의미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문화산업/문화콘텐츠', '창조(산업)'이 차지했고, 주제어 빈도수 공동 8위인 '지역'이 연결중심성에서는 7위를 차지함으로써 역시 다른 주제어들과 잘 연계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박물관/뮤지엄'은 주제어 빈도수 6위임에도 불구하고 연결중심성에서는 21위로 거의 최하위 수준을 보였고, '저작권'과 '종교'는 연결중심성 최하위를 기록했다.

매개중심성분석 결과를 보면 역시 빈도수가 가장 높은 주제어 '문화'(118.857)가 크게 앞서 있고, 다음으로 대부분의 주제어를 중매할 수 있는 주제어 '정책'(79.783)이 높은 점수로 2위를 기록했다. 주제어 빈도수 14위인 '시장'(43.243)은 연결중심성도 높았지만 매개중심성에서도 큰 점수를 얻어 3위를 기록했고, 주제어 빈도수 공동 8위인 '지역'(25.387)이 4위를 기록해 다른 주제어들과의 매개 역할이 높다는 것을 보여줬다.

주제어 빈도수 13위인 ‘교육’(9,967)이 매개중심성에서 6위를 기록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머지 주제어들은 7점 이하의 점수를 보였다. 매개중심성에서도 ‘저작권’, ‘종교’는 ‘축제’와 더불어 중심성이 없는 수치를 보여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로 보건데 ‘시장’, ‘지역’, ‘교육’ 등의 주제어는 빈도나 연결중심성 또는 위세중심성과 별개로 다른 주제어들과의 중매 역할이 커서 문화정책 연구에서는 중요한 주제어임을 알 수 있다.

위세중심성분석 결과 ‘문화’가 1위를 차지했는데, ‘문화’는 그 자체로서 영향력도 높을 뿐만 아니라 다른 영향력 있는 주제어들과도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줬다. 다음으로는 연결중심성이나 매개중심성에서 2위를 차지한 ‘정책’이 역시 위세중심성도 2위로 나타났고, 3위는 ‘문화정책/행정’이 차지했다. ‘문화산업/문화콘텐츠’는 4위, 다음으로 주제어 빈도수 공동 8위인 ‘문화예술’이 5위를 차지했다. 특이한 것은 주제어 빈도수 20위인 ‘도시’가 위세중심성에서는 6위를 기록해 중심 주제어들과 친밀한 관계임을 드러냈다. 주제어 빈도수 공동 8위인 ‘지역’은 연결중심성과 마찬가지로 위세중심성에서 7위를 보여줬다. 주제어 빈도수 6위인 ‘박물관/뮤지엄’은 연결중심성 21위와 매개중심성 19위에 이어 위세중심성에서도 19위로 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저작권’과 ‘종교’는 다른 두 중심성과 마찬가지로 점수 없는 최하위를 기록했다.

표 5. 문화정책논총 연구 주제어 중심성분석 결과

주제어	연결중심성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Out degree	In degree		
문화	3,864	2,757	118,857	0.505
문화정책 /행정	1,948	1,782	10,659	0.428
문화산업 /문화콘텐츠	1,101	1,101	6,821	0.221
정책	2,894	2,894	79,783	0.482
창조 (산업)	1,057	1,057	2,550	0.193
박물관 /뮤지엄	0.236	0.236	0.475	0.048
미술	0.699	0.699	2,061	0.078
다문화	0.426	0.426	4,852	0.090
문화복지	0.505	0.505	0.730	0.114
문화예술	0.848	1,154	7,909	0.204
저작권	0.000	0.000	0.000	0.000
지역	1,040	1,269	25,387	0.198

교육	0,901	1,072	9,967	0.174
시장	1,245	1,338	43,243	0.125
공연(예술)	0.593	0.634	4,044	0.035
일자리	0.352	0.450	0.083	0.069
종교	0,000	0,000	0,000	0,000
중국	0.671	0.782	1,146	0.114
한류	0.336	0.393	0.591	0.045
도시	0.937	1.103	0.313	0.201
마케팅	0.787	0.787	7,100	0.057
축제	0.160	0.160	0,000	0.030
거버넌스	0.716	0.716	1,598	0.135
문화자본	0.408	0.408	0.970	0.058

6. 언어네트워크분석 결과의 시각화

Netdraw 기법을 활용하여 언어네트워크분석 결과를 시각화한 것이 [그림 1]이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문화’와 ‘정책’은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위세중심성 모두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시장’과 ‘지역’은 주제어 빈도수는 다른 주제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으나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 위세중심성에서 중심에 서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산업/문화콘텐츠’는 매개중심성은 떨어져도 핵심 주제어인 ‘문화’, ‘정책’ 등과의 연결중심성과 위세중심성이 높음을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다. 아울러 ‘문화정책/행정’과 ‘문화예술’도 중심성 모두 높은 수치와 순위를 기록해 문화정책 연구의 중심에 있음을 그림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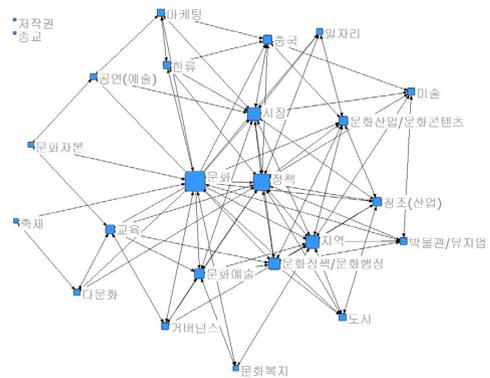


그림 1. 문화정책논총 연구 주제어 언어네트워크 분석 결과

V. 결론

본 연구는 언어네트워크분석을 통해 문화정책 연구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이제까지의 연구동향은 물론 이를 통해 앞으로의 연구에 대한 시사점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과 제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네트워크분석을 통해 새로운 관점에서 문화정책 연구동향을 분석함으로써 비록 탐색적인 의미이지만 문화정책 연구동향 연구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문화정책 연구동향에 관한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보다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전체적인 주제어 분석결과 가장 많은 빈도수를 기록한 주제어는 ‘문화’였고, ‘문화정책/행정’, ‘문화산업/문화콘텐츠’, ‘정책’이 최다 빈도수를 기록한 그룹에 포함되었다. 다음으로 ‘창조(산업)’와 ‘박물관/뮤지엄’, ‘미술’, ‘다문화’, ‘문화예술’, ‘문화복지’, ‘저작권’, ‘지역’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연도별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지난 8년간의 문화정책 연구에서 기본적으로 ‘문화’, ‘문화산업/문화콘텐츠’, ‘문화정책/행정’은 꾸준히 가장 많이 다루어져 온데 반해, 다른 주제어들의 연도별 추세에 관한 일관성은 찾기 어려웠다. 문화정책의 영역이 다양해지면서 정책연구 또한 특정 주제어와 영역을 나타내는 주제어에 편중되기보다 다양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보건데, ‘문화’, ‘문화산업/문화콘텐츠’, ‘박물관/뮤지엄’, 등‘에 관한 연구는 주요한 연구영역으로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정책이나 문화예술 현장의 상황과 연계한 다양한 주제어들이 연구 대상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견된다.

셋째, 단순한 주제어 빈도수에 의한 주제어의 중요도보다도 중심성을 감안한 주제어에 대한 연구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빈도수에서 공동 8위로 뒤졌던 ‘지역’의 경우 매개중심성 4위와 연결중심성과 위세중심성 7위의 높은 자리를 차지했다. 주제어 빈도수 14위인 ‘시장’은 매개중심성 3위, 연결중심성 4위를 차지했다. ‘교육’은 주제어 빈도수에서 13위지만 연결중심성과 위세중심성에서 9위, 매개중심성에서 6위를 기록했고, ‘도시’는 주제어 빈도수에서 공동 20위로 최하위수준이지만 연결중심성 8위, 위세중심성 6위에 올라 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지역’이나 ‘시장’, ‘교육’, ‘도시’ 등은 중심성이 높은 주제어들로서 그간의 논문들에 수록된

주제어 빈도수에 관계없이 앞으로 문화정책 연구의 중요 주제어로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넷째, ‘문화복지’와 ‘다문화’는 주제어 빈도수가 10위 안에 드는 데 비해 중심성분석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으나, 앞서 기술한 현 정부의 국정운영계획을 감안할 때 이 정부 기간 동안 중요한 문화정책 과제가 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문화정책 연구 주제로서도 자주 논의되어질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언어네트워크분석을 통해 문화정책 연구동향을 분석함으로써 그간의 내용분석법에 의한 연구동향 분석과 다른 관점에서 연구를 시도함으로써 학문 연구의 다양화와 객관화에 나름 기여했다고 본다. 그러나 언어네트워크분석 방법이 연구자의 주관성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시각과 입체적인 시각에서 연구할 수 있는 방법론임에도 불구하고 주제어의 유사언어 통합과정에서 적지만 연구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전체 분석을 위한 빈도수는 4회, 연도별 분석을 위한 빈도수는 2회로 설정했는데, 사전조사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해도 이 또한 주관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앞으로 빈도수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서 보완적인 연구방법과의 연계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난 8년간의 총괄적인 중심성분석과 별도로 매 연도별 중심성분석을 통해 보다 입체적인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나아가 정권별 연구동향의 특성 등도 추후 연구되길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1]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2017. http://www1.president.go.kr/newsList4.php?srh%5Bview_mode%5D=detail&srh%5Bseq%5D=822\
- [2] 오양열, “한국의 문화행정체제 50년: 구조 및 기능의 변천과정과 그 과제,” 문화정책논총, 제7집, pp.29-74, 1995.
- [3] 임학순, “문화정책의 연구영역과 연구경향 분석,”

- 문화정책논총, 제8집, pp.1-27, 1996.
- [4] 김정수, "한국 행정학 60년 문화행정 연구의 동향과 성찰," 행정논총, 제54권, 제4호, pp.105-139, 2016.
- [5] 이종인, *한국의 문화정책에 관한 연구: 문화발전과 문화정책론*,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6] 정재완, *한국의 문화정책*, 문화운동론, 서울: 공동체, 1985.
- [7] 박종국, "문화정책," 한·불 문화시설 건축세미나 발표자료, 1987.
- [8] 정홍익, "문화정책의 역사적 분석," 한국행정학회 연례학술대회 발표 논문, 1991.
- [9] 정홍익, "문화행정연구: 개념틀과 분석," 한국행정학보, 제25권, 제4호, pp.229-245, 1992.
- [10] 정홍익 "문화정책의 회고와 발전방안," 광복50주년 기념논문집, pp.421-463, 1995.
- [11] 박양우,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 화두는 문화경제의 활성화," 문화예술, 제236호, pp.11-16, 1999.
- [12] 변정수,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 손이 모르게 하라? - 문민정부 문화정책 비판," 문화과학, 제12호, pp.217-227, 1997.
- [13] 원용진,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 문화과학, 제17호, pp.181-206, 1999.
- [14] 이원재, "새 정부 문화정책 제안: '문화민주주의의 꿈!'," 문화과학 제33호, pp.337-349, 2003.
- [15] 원용진, "문화정치적 입장에서 본 '노무현 정부' 문화정책 3년," 문화정책 개혁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문화연대, 2006.
- [16] 김정수, "한류현상의 문화산업정책적 함의: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해외진출과 정부의 정책지원," 한국정책학회보, 제11권, 제4호, pp.1-21, 2002.
- [17] 이병량, "한국 정책연구에서 다문화정책 연구의 경향 분석," 한국행정논집, 제23권, 제4호, pp.1243-1263, 2004.
- [18] 박광국, "문화행정 60년의 분석과 과제," 특별기획 세미나자료, 한국정책학회, 2008.
- [19] 박양우,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 방향에 관한 고찰,"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631-660, 2008.
- [20] 박양우, "한국 문화콘텐츠산업정책의 추세 분석," 예술경영연구, 제22호, pp.299-332, 2012.
- [21] 임학순, "문화정책의 연구영역과 연구경향 분석," 문화정책논총, 제8집, pp.1-27, 1996.
- [22] 임학순, "우리나라 문화정책 연구경향 분석 (1998 - 2007)," 문화정책논총, 제21집, pp.25-48, 2009.
- [23] 임학순, "우리나라 예술경영 연구의 동향분석-「예술경영연구」의 수록 논문을 중심으로," 예술경영연구, 제14호, pp.49-71, 2009.
- [24] 양지연, "해의 박물관경영 연구의 동향 분석," 예술경영연구, 제14호, pp.29-48, 2009.
- [25] 이병량, "한국 정책연구에서 다문화정책 연구의 경향 분석," 한국행정논집, 제23권, 제4호, pp.1243-1263, 2011.
- [26] 황동열, 홍성보, "박물관운영 분야 학술연구 동향에 관한 계량서지학적 분석," 박물관학보, 제20호, pp.9-31, 2011.
- [27] 서순복, "한국문화정책 연구쟁점의 분석과 전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4권, 제2호, pp.257-273, 2013.
- [28] J. McGuigan, *Rethinking Cultural Policy*, Maidenhead: Open University Press, 2004.
- [29] H. K. Colebatch, *Policy*(2nd edition), Buckingham and Philadelphia: Open University Press, p.86, 2003.
- [30] M. Arnold, *Culture and Anarch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0.
- [31] E. B. Tylor, *Primitive Culture: Researches into the Development of Mythology, Philosophy, Religion, Art, and Custo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 [32] R. Williams, *The Sociology of Cultur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1.
- [33] H. D. Lasswell and A. Kaplan, *Power and Societ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0.
- [34] Y. Dror, *Public Policymaking Reexamined*, New Brunswick: Transaction Inc, 1983.

[35] 정정길, *정책학원론*, 서울: 대명출판사, 2017.

[36] S. Wassetman and K. Faust,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s and applications*, The Press Syndicate of the University of Cambridge, 1994.

[37] 양승돈, "언어네트워크분석(Semiotic Network Analysis)을 활용한 민간경비 분야의 연구 경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1호, pp.894-901, 2013.

[38] 이수상, "언어네트워크분석 방법을 활용한 학술 논문의 내용분석," *정보관리학회지*, 제31권, 제4호, pp.49-68, 2014.

[39] 김학준, 정광민, "언어네트워크분석을 통한 국내 사회과학분야 항공관련 학술지 연구 트렌드 분석," *관광레저연구*, 제28권, 제9호, pp.297-316, 2016.

[40] 한관중, "사회과학방법론으로서의 연결망 분석 기법 적용의 의의와 연구과제: 의미와 연결망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을 중심으로," *사회과학교육연구*, 제10권, 제2호, pp.219-235, 2003.

[41] 이해준, 이동일, 이주현, "의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프랜차이즈 교육 프로그램 개발," *경영교육연구*, 제14권, 제2호, pp.105-128, 2010.

[42] 유대영, *소집단 활동에서 과학 영재들의 의사소통 구조에 따른 지위형성과 언어네트워크 분석*,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43] 서준일,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스마트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44] D. Hansen, B. Shneiderman, and M. Smith, "Analyzing social media networks: Learning by doing with NodeXL," *Computing*, Vol.28, No.4, pp.1-47, 2009.

[45] 박효연, 이혜련, 김대관, 송수엽,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메가이벤트 신문사설 분석: 2012 여수엑스포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제38권, 제1호, pp.179-199, 2014.

[46] L. C. Freeman, "Graphic techniques for exploring social network date," In P. J. Carrington, J. Scott, and S. Wasserman(eds.),

Model and methods in Social Network Analysis, NY, Cambridge, 2005.

[47] 조재인, 이지원, "대학도서관의 직무 연결성 분석," *정보관리연구*, 제43권, 제4호, pp.31-48, 2012.

[48] 박한우, L. Leydesdorff, "한국어의 내용분석을 위한 KrKwic 프로그램의 이해와 적용: Daum.net에 제공된 지역혁신에 관한 뉴스를 대상으로,"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제6권, 제5호, pp.1377-1388, 2004.

[49] S. P. Borgatti, M. G. Everett, and L. C. Freeman, *Ucinet for Windows: Software for Social Network Analysis*, MA: Analytic Technologies, 2002.

[50] 김학준,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MICE 연구 트렌드 분석," *관광레저연구*, 제27권, 제6호, pp.191-217, 2015.

[51] 김학준, 이동환, "캠핑에 관한 연구 트렌드 분석," *관광레저연구*, 제28권, 제7호, pp.223-238, 2016.

저 자 소 개

박 양 우(Yang Woo Park)

정회원



- 1986년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 1991년 : 영국 시티대학교 대학원(예술행정학 석사)
- 2007년 : 한양대학교 대학원(관광학 박사)

- 1986년 ~ 2008년 : 문화체육관광부 근무
- 2011년 ~ 2012년 : 광주ACE Fair(국제문화창의산업전) 추진위원장
- 2011년 ~ 2014년 : 한국영상산업협회장/한국영화배급협회장
- 2015년 ~ 2017년 : 광주비엔날레 대표
- 2008년 3월 ~ 현재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교수

<관심분야> : 문화정책, 예술경영, 관광정책